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 입니다. 추석이라는 것은 벼농사를 지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풍습입니다.

추석에는 금년에농사한 첫수확물을 조상에게 바치는 것으로 이것은 1년의 농작물을 받쳐, 수확물을 얻은 감사의 마음과 내년의 농사가 풍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추석이 되면 한국에서는 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고 묘 주위를 청소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람들이 고향에서 먼곳에서 살고있기 때문에 조상의 묘에 갈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고향의 사람들에게 선조의 묘들 부탁하는 경우도 많아 졌습니다.

추석에 또 볼수 있는 풍습은 고향에 귀향하기 위해 표를 사려고하는 사람들의 행렬입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표를 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추석은 고향에 가는 1년에 몇번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긴 시간 열을 서서 기다리지만, 전혀 화난 표정을 하지않고 즐거워합니다.

또 추석 행사 중에 제일 많이 볼수 있는 풍습은 밤이 되기 전에 달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다와 산에 가는 것입니다. 추석의 달은 1년 중에서 가장 밝고 그 달에 제일 먼저 소원을 빌면,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마음으로 달에게 소원을 빕니다.